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

## 성모 성월을 맞이하며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모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5월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 속에서 풍겨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를 그분께 인도해주는 한 송이 해바라기 같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한평생 사셨던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성가 248장을 보면 “한 생을 주님 위해”라는 제목과 함께 성모님의 한 생을 노래로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그 곡에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성모성월을 보내면 어떨까요?

“한 생을 주님 위해 바치신 어머니 아드님이 가신 길 함께 걸으셨네,  
어머니 마음 항상 아들에게 있고 예수님 계신 곳에 늘 함께 하셨네.  
한 생을 주님 위해 바치신 어머니 아드님이 가신 길 함께 걸으셨네,  
십자가 지신 주님 뒤따라 가시며 지극한 고통 중에 기도 드리셨네.  
한 생을 주님 위해 바치신 어머니 아드님이 가신 길 함께 걸으셨네,  
주님의 뜻을 위해 슬픔도 삼키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아들 예수님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치신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이 단순히 아드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아드님과 함께 걸으신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신의 외아들을 품에 안고 슬퍼하시는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고, 우리를 품에 안고 부활하기를 바라며 지금도 하느님께 전구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성모 성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명동대성당 사순 특강



3월 13일(월) 명동대성당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의 사순 특강이 있었습니다. 현대일 위원장 신부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6) 성경 말씀을 토대로 묵상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나, 공동체의 연대와 통제로 범죄 억지력이 생겨 범죄 예방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범죄에 대한 다양한 교정교회 노력이 필요함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좌도와 같이 자신의 지향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우도처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약자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공감으로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감옥이었을 예수님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 각 교정시설 부활절 간식 지원



4월 6일(목) 서울구치소(2,900개), 서울동부구치소(2,600개), 서울남부구치소(2,000개), 서울남부교도소(1,400개)에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부활절 간식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교정시설에서는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안정적인 수용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부활 간식을 통해 모두가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동부구치소 여사 세례식



4월 4일(화)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4명, 6일(목)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2명의 세례식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더불어, 서울동부구치소 여사에서는 성 목요일, 6명의 세례례도 진행되었습니다. 미사에 함께한 모든 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느님을 닮은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용기를 더 내 볼 것입니다.

백옥희 데레사\_서울구치소 여사 봉사자

찬란한 봄입니다. 구치소 마당에도 연듯빛 새잎이 다투어 피어나 마음을 부풀려 줍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가 저절로 되는 특수 사목 현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국가로 진입하면서 복지와 함께 의료 발달도 최고 수준입니다. 2010년 회사 건강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고, 상급병원 검사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상에 찌들어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암을 진단받은 것과 구치소 자매들이 욕심을 부려 유죄 판결 받은 느낌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 진단은 그렇게 젊지도 늙지도 않아 별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공부에 가족들은 제 일에 충실한데 왜 서운한 건지... 하느님도 많은 사랑을 주시지만, 각자 일에 빠져 있으면 많이 서운하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차 관문은 소독약이 역겨운 병동, 외과 의사의 진단과 치료 방법, 불확실한 결과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2단계는 항암 약물과 시간이 몸에 가하는 무게를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3단계는 약물 때문에 골룸 같이 변화된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최면 단계입니다. 4단계는 암 치료로 흐트러진 마음과 몸과 정신을 결속시키는 영혼 치료입니다.

1차 2차 치료는 병원이란 공간과 의술에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3차 4차 치료는 신앙이 없었으면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1~2차 치료 효과가 나도록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께 간절히 의탁했습니다.

자신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천주교의 사제, 수도자는 가족을 포기하고 신자들을 위해 사목하십니다. 얼마나 기막힌 사랑입니까?

지금까지 저를 살려 놓은 걸 보면 못다 한 사랑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제 작은 도움의 손길, 내어준 시간, 나누는 눈짓이 재소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갖가지 피조물을 소중히 가꿀 수 있다면 주님이 불러 갈 때까지 용기를 더 내 볼 것입니다.

이 봄날이 주님의 숨결인 것 같습니다.



## 감옥에 갇힌 삼 손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 혹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판관 13,7)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나지르인이었지만, 나지르인의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는 주검에 가까이 하지 말 것(민수 6,6)인데, 삼손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천명이나, 게다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당나귀 턱뼈를 들고 휘두르면서 아무렇지 않게 죽입니다. 구약시대에 죄악시되던 이교도와 결혼(판관 14, 10)하고, 창녀와 함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판관 16,1). 판관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것을 생각하면, 지도자의 품격에 맞는 행동과는 멀어 보입니다. 또한 판관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웠던 시기에 그 국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 뽑힌 일시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 판관에게 주어진 힘은 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힘을 개인적 분풀이를 하기 위해 쓰거나, 힘자랑으로 사용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결혼식 하객들과의 내기에 걸린 예복을 갚아주기 위해서 서른 명을 죽이고(판관 14,1-19), 아내를 못 보게 한다며 분풀이로 여우에 불을 붙인 후 필리스티아인들 곡식밭으로 보내어 태웁니다. 그 복수로 필리스티아인들이 자신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버리자, 다시 삼손은 닥치는 대로 필리스티아인을 쳐 죽입니다(15,1-8). 이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유다인들에게 항의하고, 그래서 유다인들이 필리스티아인에게 넘기기까지 합니다(판관 15,12). 유다인들이 오히려 자신의 지도자를 묶어서 적에게 넘기는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필리스티아인들을 많이 죽였다고 했지만, 유다인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들릴라와의 이야기에서, 그가 여자와 사랑에 빠져 속임수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느님께 받은 재능인 힘과 권력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들릴라를 사랑했다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질문에 세 번이나 거짓말로 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된 추궁에 삼손은 들릴라에게 말합니다. “내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소.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아 버리면 내 힘이 빠져나가 버릴 것이요. 그러면 내

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된다고.”(판관16,17) 그러나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털이 아니라, 하느님이었습니다. 머리털은 하느님께 봉헌한 표일 뿐, 삼손 힘의 근원은 ‘주님의 영’이었습니다.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은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이닥쳤다’(판관 14,6;14,9;15,14)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털이 깎인 후에도, 그렇게 하느님 서원을 보잘것없이 내팽개치고서도 계속 힘을 쓸 수 있을 듯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지난번처럼 밖으로 나가 몸을 빼낼 수 있겠지.’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판관 16,20) 결국 그는 구속되고, 감옥에 갇혀 노역까지 하게 됩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후벼 낸 다음,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청동 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매를 돌리게 하였다.(판관 16,21)

“깎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판관 16,22)의 표현은 중의적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감옥 안에서 시간이 자라면서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머리카락은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했다는 의미였기에, 삼손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자기 서원의 의미를 다시금 키워갔다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마지막으로 힘을 쓰면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주 하느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판관 16,28) 하느님께 기억해달라고 청하며, 힘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기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다면, 머리가 자란 것을 알고 이전처럼 마구 자신의 힘을 놀렸을 것입니다. 힘은 하느님께 온다는 것을 감옥에서 깨달았기에, 하느님께 부탁을 드리며, 하느님 뜻에 맞도록 힘을 쓰려고 한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들, 내 재능이고, 내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하느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점을 잊었을 때, 자만심에 취해서 멋대로 놀립니다. 바닥에 내쳐지기도 합니다. 실패도 경험합니다. 또한 검찰, 정치인들에게도 메시지를 줍니다.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힘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고, 국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뜻대로 쓰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두서없이 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있는 것을 위해, 그런 이웃 제조자들을 위해서 정성들인 커피와 라자, 부활절 달걀을 예쁘게 포장까지 하여 그분의 뜻을 돕고 실천하시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빵이 아니라 지난 생계도, 크고 마소이도, 감사한 마음을 잘 받았습니다만, 이제서야 너무 늦은 마음을 전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 뿐입니다.

이웃 제조자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전례주신 사랑이 담긴 물품들이 제바 느끼기에 가격도 내는 고가에 물품들이라... 여러 많은 뜻 있으신 분들께 신앙심과 마음이 크게 감겨 있음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글로 밖에 표현할 길이, 보답을 드릴 길이 없으니 감사를 올립니다.

다만, 항상 그분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도 입지만, 종교라는 것은 그저 나누는 베행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의 뜻은 그런 베행으로 인한 나눔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 뜻 안에서 평안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그분의 뜻을 어려운 가련의 애사로 실천해 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만 올립니다.

2023년 4월 6일



윤길





## 2023년 6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모바일 후원신청



▶ 카카오톡 채널

### ● 행사 알림

- 5월 1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야외미사 / 대전교구 해미성지 / 9:00(명동 교구청 앞마당 출발)
- 5월 2일(화)~4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여사)
- 5월 2일(화), 4일(목)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3기 인성교육
- 5월 8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휴무
- 5월 12일(금) 사회사목국 전체 직원 교육 / 가톨릭회관 1층
- 5월 20일(토)~21일(일) 청구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청구성당
- 5월 22일(월)~26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 화성직업훈련교도소(남사)
- 5월 30일(화)~31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 서울남부구치소(남사)

###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23/3/18~23/04/12)

2023년 3월~ 4월에는 박건서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